

교 회 소 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성령강림 후 열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9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는 창조절기로 지킵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목장지기(목자)모임이 예배 후에 시나이룸에서 있습니다.
4.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3일 : 장하울 26일 : 오덕환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박성조 / 설교번역: 최은지
- 9월 안내 및 봉사: 코니 목장

*향후 교회 행사 (Church Plan)

- 추수감사 공동식사 : 11월 16일 주일 예배 후

*성서일과 Lectionary (제 38주)

암 8:4-7 / 시 113 / 딤후 2:1-7 / 눅 16:1-13

교회세운날 2017.6.11

25-38 9월 21일 (성령강림 후 열다섯 번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 일 예 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오후 8시 Zoom으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담임목사 : 김경현 목사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사 60:1-2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새번역)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김배형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교사 및 학생

찬송 —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5장 11-17절 — 인도자

설교 — 서로 사랑하라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 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인도자

* 표에는 일어납니다.

목회편지 / 새마음으로 바뀌주세요

캘리포니아에서 유학생생활을 하던 시절, 여러 모로 살림살이가 부족했습니다. 그나마 기숙사의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물건들을 싼 값에 나누는 문화가 있었지요. 몇 달이 안 되어 같은 신대원에서 동문수학했던 친구가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며 많은 것들을 물려 주고 가서 제법 살림살이가 넉넉해 졌지요. 하루는 한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케스트 아이언(무쇠)으로 된 프랑스제 냄비 자랑을 엄청하더라구요. 저절로 음식하면 뭐가 다르나 하면서도 호기심이 생겼죠. 특가로 나온 가장 작은 더치 오븐을 사보기로 했습니다. 유학 온 지 얼마 안 되어 달려에 대한 감각이 별로 없어서 그냥 한 번 질러 본 것이었지 지금이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피나 만족하며 몇 년을 썼죠. 특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순두부 찌개를 끓이기에 적당한 크기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순두부를 두 개는 잘라 넣어야 했고 순두부 두 개의 양을 감당하기엔 냄비가 살짝 모자라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에나멜 코팅된 무쇠 냄비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기에 함부로 세척을 하다보니 에나멜 코팅이 서서히 벗겨져 버리더군요. 그것을 권했던 친구에게 얘기했더니, 그 제품은 lifetime warranty라 클레임하면 새걸로 바꿔줄 거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설마설마 하며 클레임을 했는데 정말로 새로운 무쇠 냄비를 보내주더군요. 게다가 2.4Qt의 저허가 사용했던 냄비는 품질이라며 4.5Qt 냄비를 보내준 겁니다. 거의 두 배 용량의 새 냄비를 받아두고 매우 흐뭇해졌습니다. 이제 순두부 2개가 아니라 4개 넣어 끓여도 모자랄 것 같지 않았죠. 묵은 것을 보내버리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지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요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독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중, 시편 51편 9-10절 말씀이 이 사건과 겹쳐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것으로 만드신 사람이, 자신의 탐욕을 쫓아가다 더럽혀지고 망가진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탄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더럽혀진 자신의 마음을 새것으로 바꿔달라는 클레임인 것이죠. 아브라함 여호수아 헤셀이라는 유대인 사상가는 타락을 “왕으로 태어났는데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 말했습니다. 용도에 맞지 않게 마음을 쓰다보니 마음이 더럽혀질 뿐 아니라 기능을 상실할 정도로 망가져 버린 것이죠. 우리 마음도 무쇠 냄비처럼 Lifetime Warranty가 있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를 빚으시고 내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시인처럼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을 새것으로 창조하시고 새 영으로 기름칠해 주신다면 우리는 다시 주님의 길을 갈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새 마음을 받기만 한다면 무쇠 냄비를 받는 기쁨보다 훨씬 큰 기쁨에 덩실 덩실 춤이라도 추겠습니다.